

영화·드라마·게임 무한확장... '황금알 낳는 웹툰 IP'

카카오, 네이버 웹툰IP 활용 활발
 흥행시 원작 웹툰도 재조명 '원원'
 지난해까지 영상판권계약 180건

잘 키운 웹툰 지식재산권(IP)이 영역을 무한 확장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웹툰에서 시작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 분야와 음악, 게임, 캐릭터 상품으로 나오는 등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오래전 나왔던 웹툰이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는 최근 웹툰 '달빛조각사'의 OST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가수 이승철과 배우 박보검이 만나 주목을 받았다. 달빛조각사는 가상현실 게임 속 주인공이 달빛을 조각하는 직업을 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으로 카카오페이지의 대표 IP로 꼽힌다.

소설로 처음 나온 후 웹툰, 게임, 음악으로 만들어졌다. 소설이 흥행하면서 이후에도 성공 행보를 이어나가는



웹툰 이태원 클래스 이미지. /카카오페이지

것으로 하나의 좋은 IP를 확보하면 다른 형태의 작품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담보하게 되는 셈이다.

오래전 나왔던 웹툰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한다.

다음웹툰은 9년 전 나온 웹툰 '해치지않아'가 최근 영화로 개봉됨에 따라 원작 웹툰을 재편집해 새롭게 연재를 시작했다.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면

원작인 웹툰을 찾아보려는 사람이 늘어 자연스레 구독자와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 웹툰 '좋아하면 울리는'의 경우, 지난 8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공개된 직후 일주일간 독자수가 전주 대비 14배 넘게 증가했고, 매출 역시 평일 동기간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웹툰은 2006년 최초의 웹툰 원작 영화였던 강풀 작가의 '아파트' 이후, 윤태호 작가의 '미생'을 드라마로 선보였으며, 훈(HUN)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영화로 695만 관객을 동원하는 등 성공적인 영상화 사례를 다수 만들어 왔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뤄진 영상 판권 계약은 누적 180여 건에 이른다.

카카오페이지는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해치지않아'를 비롯해,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메모리스트', '쌍갑포차'와 영화 '정삼회담'을 올해 상반기 중 영상화한다. 드라마 '망자의 서'와 '계약우정'도 올해 중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웹툰도 IP 활용에 활발한 모습이다. 네이버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

리밍 서비스(OTT) 시장이 확대하면서 웹툰 IP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웹툰에서 검증된 수많은 IP를 기반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네이버 웹툰이 가지는 IP 가치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라며 "글로벌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좋은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영상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아시아의 디즈니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이버웹툰은 영상 기획·개발을 담당하는 자회사 스튜디오N 등을 통해 콘텐츠 IP 기반 비즈니스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OTT 플랫폼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기를 입증한 웹툰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IP의 활용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 참신한 소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한화시스템

협력사 대금 480억 조기지급

한화시스템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의 자금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한화시스템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109개사 대상 408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업체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조기지급하게 되는 대금은 협력사 별로 상이하지만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순차 지급하게 된다.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의 동반성장철학인 '함께 멀리'를 바탕으로 협력사와의 나눔 경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인덕션 핵심부품 무상보증 최대 '10년 보장'

삼성전자가 인덕션 핵심 부품을 최대 10년간 무상보증해주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인덕션 프리미엄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들어 3구 이상 인덕션을 구매하는 고객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코일과 상판이다. 종전까지는 1년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10년과 3년까지 보증기간을 확대했다. 만약 고장이 나면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에 접수해 해당 부품을 무상 교체받을 수 있다. 단, 코일과 상판을 제외하고는 1년 무상 보증 기간을 유지한다.

/김재용 기자

코트라

해외안전관리요령 동영상 배포

KOTRA(코트라)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책과 대처법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

22일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84개국, 129개 도시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중인 코트라는 '안전'을 핵심 경영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부터는 안전관리 대상을 직원과 기업고객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번 동영상은 총 6분 분량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예기치 않게 직면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주제로 담았다. 테러, 납치, 총기난사, 노상강도 등 평소 대응요령 숙지가 요구되는 범죄를 다뤘다.

특히 코트라 자체 축적자료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테러, 납치, 총기난사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며 전문성과 정확성도 확보했다.

해외안전관리요령 동영상은 코트라, 국가정보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휘센 에어컨 미리 구매하면 70만원 캐시백"

(최대)

LG 휘센 미리 구매 대축제

업그레이드, 사전방문 등 혜택

LG전자가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일찍 구매하는 고객을 위한 혜택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0 LG 휘센 미리 구매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LG베스트샵 등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휘센 에어컨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캐시백, 제품 업그레이드 등 실속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듀얼 디럭스 이상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을 선물한다. 대형 평수에 특화된 제품인 27평형 크라운 스페셜 모델에는 최대 70만원까지 캐시백이 부여된다.



LG전자는 휘센 에어컨을 미리 구매하는 고객에 특별 이벤트를 제공한다.

/LG전자

제품 업그레이드도 된다. 듀얼 스페셜 이상 투인원 모델을 구매하면 일반 벽걸이 에어컨 대신 공기청정 기능이 적용된 제품으로 바뀐다. 20만원 상당 혜택이다. 듀얼 프리미엄 이상 모델 구매시에는 클린봇을 탑재한 모

델로 바뀐다.

설치 전문가인 미스터 휘센의 사전 방문 서비스도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고객 집구조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설치 방법을 제안해준다.

/김재용 기자 juk@

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등으로 美 정조준

'KBIS 2020'서 신제품 20종 공개

LG하우시스가 엔지니어드 스톤, 인조대리석 등으로 북미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들 잡기에 나선 가운데 자사의 미국 조지아 공장 엔지니어드 스톤 3호 라인이 올해 1·4분기 중 완공되면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추가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하우시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KBIS 2020'에 참가해 엔지니어드 스톤과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신제품 20종을 공개하고 신규 거



LG하우시스는 21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주방·욕실 전시회 'KBIS 2020'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래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하우시스는

/김승호 기자 bada@

한화큐셀

유럽·호주서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

한화큐셀이 유럽·호주 등 해외 등지에서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화큐셀은 유럽에서 7년 연속, 호주에서 5년 연속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은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이유피디 리서치(EuPD)가 유럽과 호주 태양광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시장 침투력 등을 기준으로 고객 조사를 실시해 수여한다. 이유피디는 2010년 독일을 시작으로 매년 ▲태양광 모듈 ▲인버터 ▲에너지 저장장치 3개 제품군에 대해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여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2012년 한화그룹이 독일 큐셀을 인수한 이래 2014년부터 유럽 태양광 톱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유피디가 수상 범위를 호주까지 확대한 2016년부터는 호주에서도 매년 태양광 톱 브랜드를 수상하고 있다. 이처럼 한화큐셀이 유럽과 호주에서 높은 브랜드 파워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효과적인 현지 영업 마케팅 전략이 있다.

한화큐셀은 전 세계 주요 업계 시상식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은 큐피크 듀오 시리즈와 태양광 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에너지 태양광 솔루션인 '큐홈'을 유럽과 호주에 공급하고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